

교과서 불교서술 오류 바로잡는다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구성 6월 세미나 개최...위원장에 법안스님

초중고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불교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적으로 합의된 불교내용을 마련할 전문기구가 꾸려졌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는 지난 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교육부의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불교계 차원에서 합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역사 및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문제점을 세미나를 통해 제기해 온 불교 연구원과 전문연구자들이 불교사회연구소에 전문기구의 필요성을 제기, 연구소가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우선 2016년판 인쇄용 교과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교육부 산하 교과서연구재단과 발행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역사, 세계사, 지리, 도덕, 윤리 등 일반 사회계열 과목을 분석하고 수정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직 교사 및 연구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경훈 한국교사불자연합회장, 이학주 전국교법사단장, 심익섭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한기 은석초 교장, 김형중 등

대부중 교감, 김화연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정호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위원장으로 소장 법안스님을 추대했으며, 김형중 교감과 김정호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중단 차원의 정식기구로 발족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안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와 논의해 시행령을 만들고 합법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향후 사회부 산하 위원회로 갈지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기관으로 할지를 고민해 중단에 정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3월 중 회의를 갖고 각 과목별로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그동안 불교 서술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불교교육연구소나 연구위원회 등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본지 3029호 참조) 세미나도 몇 차례 있었지만, 오류와 편향성을 대폭 수정하거나 교과서 개정에 반영되는 등의 뚜렷한 결실은 보지 못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와 불광연구원은 오는 6월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분단70주년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민추본 불교통일선언 검토 “역량확충 예산 2억 적립”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는 지난 2월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불교통일선언문 초안과 남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사회는 ‘공존’, ‘상생’, ‘합심’의 남북통일담론을 담은 불교통일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고 자문단을 구성해 보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진행할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불교통일선언 및 도

담도담 캠페인 △부처님오신날 남북합동점등법회 △만해스님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금강산 신계사 복원 보존보수 및 공동조사 추진 등을 확정했다. 민추본 이사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등 민추본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면서 “남북불교교류를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적립해 민추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월26일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후지타 류조 신임 회장(오른쪽)의 취임을 축하했다.

“변함없는 한일교류”

일한불교교류협회 신임 회장단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환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이 일한불교교류협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지속적인 한일 불교교류를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은 지난 2월26일 일한불교교류협회 신임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후지타 류조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넨 뒤, “전일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한국 불

교계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꾸준히 교류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5월 불행 예정인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에 일본 스님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6월 용주사에서 열리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도 “5월16일부터 18

일까지 기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스님들께서도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지타 류조스님은 “역대 회장 스님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임원 스님들과 힘을 합쳐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양국 불교간 변함없는 우정과 교류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승려복지 지역포교 활성화 중점”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임명 탄자니아 기술고 기금 보시



임을 잘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묵스님은 “앞으로 여러 스님을 잘 모시고 경허·만공스님의 정신을 잘 계

승해 나가겠다. 승려복지와 포교에 중점을 두겠다”며 “특히 내포신도시 포교에 집중해 수덕사가 총남에서 제일 가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묵스님은 이와 함께 “총남불교 흥흥을 위해 마곡사와 함께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묵스님은 법장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산 선본사, 서울 호암사 주지와 12, 13, 14, 15대 중앙총회 의원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암사 회주를 맡고 있다.

승해 나가겠다. 승려복지와 포교에 중점을 두겠다”며 “특히 내포신도시 포교에 집중해 수덕사가 총남에서 제일 가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묵스님은 이와 함께 “총남불교 흥흥을 위해 마곡사와 함께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묵스님은 법장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산 선본사, 서울 호암사 주지와 12, 13, 14, 15대 중앙총회 의원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암사 회주를 맡고 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해군참모총장에 정호섭 불자

군불총 부회장 역임



제31대 해군참모총장에 불자 제독인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사진)이 지난 2월26일 임명됐다.

해군사관학교 34기 출신인 정호섭 참모총장은 해군 제2전투전단장과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교육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4년 10월부터 해군본부 참모차장을 맡아왔다.

법명이 해국(海國)인 정 참모총장은 국군불교총신도회 해군 부회장을 역임하며 군불교 발전에 앞장서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해군작전사령

관 재임시절인 지난 2013년 8월 독도함 선상에서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풍

등제’를 열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간 지체되던 해군작전사령부 해운사 조각인 해룡각(海龍閣) 낙성불사도 정호섭 참모총장이 주도해 원만히 회향됐다. 해군교육사령관 재임시절에는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교육생들의 간식을 지원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법주사 19일 ‘총림지정 신청’ 신중총회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현조스님)가 총림지정 신청을 위한 신중총회를 오는 19일 오후1시 법주사 명월료에서 개최한다. 법주사는 지난 2012년

10월 총무원회에서 총림 설치를 결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림 지정을 추진해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결의대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전국비구니회의 잘못된 행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요즘 한국불교 근현대 비구니사상 초유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들은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가 비구니회칙을 위배하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구성, 종회의원 선출 등을 임의로 하였음을 밝히고 4개월 전부터 임시총회를 열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구니 승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3월 16일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는 많은 스님들이 전국비구니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제 열린비구니모임에서 주관하는 결의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비구니회는 파행적 운영과 행보를 문제삼는 비구니스님들의 성토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전국비구니회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국비구니회인지 우린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에게 묻고 싶다. 대다수의 비구니 스님들이 전국비구니회의 변화를 바라고 총회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지혜로운 결단과 함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현재 전국비구니회는 분명 이와 같이 잘못된 일이 있는데도 잘못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광망만하고 있던 우리들도 전국비구니회의 잘못된 행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만약 전국비구니회가 편파적 운영에 대한 자성의 자세가 없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데만 급급한다면, 이것이 바로 결의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한다. 이번 3월 16일 결의대회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보다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제 대중에 의해 선출된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은 자신과 소속 비구니를 위한 회장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전국 비구니들의 수장으로 서의 위상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책임질 줄 아는 출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비구니회칙에 의하면 올해 3월에는 정기총회가 열리게 되어있다. 이번 결의대회가 전국비구니회 주체 정기총회로 전환되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래야 전국비구니회관을 설립하고, 전국비구니회를 발족시킨 근본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불기2559(2015)년 2월 24일

비구니 종진 이상 동참 명단 116명

견성 경륜 경봉 경선 경연 경현 광웅 남석 능인 대경 대련 대성 대우 대유 대원 덕호 도선 도안 도해 동조 동찬 동호 만오 명수 명순 명진 명중 명호 묘순 묘정 문수 법문 법안 법어 법일 법진 법홍 보각 보안 보각 상덕 상명 상명 상영 상화 상훈 석민 선중 성관 성령 성범 성보 성영 성우 성주 성현 수한 순행 염수현 영안 영운 영진 유광 육문 응일 의성 이혜원 인성 일권 일로 일연 일장 일조 일호 자현 재호 적연 적인 적조 정관 정묘 정성 정수 정심 정업 정업2 정우 정운 정윤 종선 종열 종화 지문 지우 지효 진성 철은 탁연 탄형 해관 해주 행돈 현각 현근 현명 현소 혜덕 혜도 혜선 혜일 혜진 혜천 혜향 화정 효경 회원 -가나다순-